

1121(월) 고린도전서 8–11장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?

고린도교회는 자신들이 복음을 잘 알고 있고
하나님에 대한 <지식>에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(8:1).

하나님은 한분이시며 우상들은 허상이므로
신전에 바쳐진 고기들도 음식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.
<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>이라고 말하면서
고기를 먹고, 신전 만찬에도 직접 참석하면서
옛 지인과의 친교 모임을 계속해 갔습니다.

(8:4,10–12, 9:19–21, 10:7–8)

바울은 단지 <고기>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.
<고기>를 매개로 신전에서의 옛 일이 상기되고
방탕과 쾌락의 감각, 욕망들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.
나의 행동이 다른 지체들에게 잘못된 심인을 주어
옛 생활로 돌아갈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(8:7–10,10장)

참으로 하나님(복음)을 안다고 하는 것은(호6:6)
하나님과 내적 결합을 통해 견고하게 연합하는 것입니다.
하나님의 마음과 뜻, 관심과 의도들을 헤아리면서
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(8:11,9장).
복음의 핵심은 세례/성찬을 통해 예수와 연합하며,
성령과 연합하며, 형제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.

(10:1–2/10:3–417,11:27/8:3,9:23)

신앙공동체의 모임과 주님의 식탁은
세상의 모임, 세상의 식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
하나님을 아는 지식(복음)은 방종이 아니라
성령으로 행하는 자발적 절제와 훈련으로 이어집니다.
인간은 <딱 거기까지만>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.

(9:24–27/10:32–33/11:17–34).

나는 하나님(복음)을 아는 지식을 가졌습니까?

- ❶ 주님과의 연합, 형제들과의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까?
- ❷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발적 절제와 훈련 속에 있습니까?